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은 한 해의 3/4이 지나가는 시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

올해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지나온 아홉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품었던 계획들과 소망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대면 예배가 안정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 모이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치료해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주셨으며, 사업과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지혜와 힘을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소망을 주시며, 외로울 때마다 동행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며, 남은 석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 가을 추수기를 맞는 감사 기도

“너는 칠칠절 곧 맥추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22)

창조주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곡식들이 풍성히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베푸심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올해도 태풍과 폭우, 가뭄과 폭염 등 여러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쌀과 보리, 콩과 옥수수,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민들의 수고를 축복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스마트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추수꾼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사랑으로 가꾸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히 키워나가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만일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14)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교회 내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회개와 새로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기성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방법들이 개발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4 -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17-18)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영적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에 빠져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래 문화와 학업, 취업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중장년층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양육하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얻은 영적 보화를 젊은 세대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성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자가 세운 신앙의 목표들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마지막주 주일 대표 기도문 5 - 세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기도

“평화롭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 테러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중동 지역의 복잡한 갈등 상황도 지혜롭게 해결되어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선되어,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하루빨리 상봉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 동남아시아의 여러 분쟁들도 평화롭게 해결되어 아시아 전체가 번영과 화합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양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각국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빈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대립,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치유되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시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며, 사랑과 용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상의 기도문들을 통해 2025년 9월 마지막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주일예배 자료와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루터교회 주일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